

광주시 민선 3·4기 사회기반시설 결산



광주천의 자연 수량확보를 위해 광주시는 하류인 서구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한 물 10만을 끌어올려 상류인 동구 용연동에서 대보냈다. 이로 인해 자연정화가 가능한 수준의 수량과 수질이 회복되면서 최근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광주천에 모습을 나타내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광주천 새물길 통수식'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천과 교통시스템

장상근 광주시 건설교통국장

“시민 삶의 질 향상 중점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주력”

장상근 건설교통국장은 “민선 3기에는 양적 개념의 사회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했다면, 민선 4기에는 질적 개념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했다”고 민선 3·4기를 평가했다.

광주시역의 확장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된 시내 간선도로와 광역연계도로, 호남고속철도 등의 조기 완공에 주력하면서, 확장을 마친 뒤에는 광주 시민과 외지인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관리’ 측면을 강조했다.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 중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등이 대표적인 질적 개념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선 3·4기에 현재 광주가 내세울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상당수 설치됐는데,

▲민선 2기에 이미 시작된 사업들도 일부 있었지만, 현재 광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에 대한 투자는 민선 3·4기에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을 더 이끌어냈고, 도시의 확장에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민선 4기에 들어서는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좀 더 매진했다고 볼 수 있다.



- 자가용은 물론 시내버스에 이르기까지 교통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됐는데,

▲빛고을로나 무진로, 제2순환도로, 산단단지 진입도로 등을 통해 차량을 통한 도시 내 이동은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졌다고 자부할 수 있다.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무료환승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들도 고급서비스를 받게 됐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차량의 무분별한 이용은 자제시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 향후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성, 친환경 등 미래 명제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보행 등에너지 소비가 적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또 도시의 기반시설이 단순히 편리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도록 해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외지인들은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맑아진 광주천 수달이 돌아왔다

5년간 690억 들여 19km 구간 수질 정화사업

준공영제·환승 체계 구축 대중교통 편리해져

민선 3·4기를 거치면서 광주천의 수질은 멸종 위기종 1급이면서 동시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해졌다. 또 황룡강과 영산강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도 시작돼 조만간 도시 어디서나 ‘맑은 물’과 녹지 뒤덮인 둔치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가 구축된 것도 이 시기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엮는 환승체계의 도입,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ITS)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준비가 이뤄졌다.

◇도시 어디서나 ‘맑은 하천’ 즐긴다=지난 2004년 말부터 시작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는 모두 69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 공사기간만 5년이 소요됐으며, 광주시 동구 선교동~서구 유촌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8.2km와 광주천 합류지점~동구 학동 속살마을(증심사천, 0.95km) 등 모두 19.15km 구간에서 이뤄졌다.

광주천의 수량확보를 위해 하류인 서구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류인 동구 용연동까지 18.4km에 1천mm 규모의 ‘유지용수 송수관로’를 묻어 매일 14만 3천200t을 흘려보내고 있다. 유수량이 늘면서 자정 기능이 회복되고, 둔치에 설치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는 운동이나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광주천은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또 광주천에 설치된 20개의 교량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미치했던 연계공간이

고싸움 등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입혀졌다.

광주시는 광주천 이외에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황룡강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서 광산구 선동~임곡동에 이르는 4km 구간을 생태정화습지, 산책로·자전거도로, 수변친수공간,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오는 2011년 말까지 8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지난 2008년 말부터 3년 간 모두 4천248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나주시 경계~용산교에 이르는 전체 33.8km 구간을 6·7공구로 나눠 공사가 시행된다. 광주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영산강의 수질이 2급수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편리성 증대=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무료 환승이 꾸준히 늘면서 그로 인해 시민들이 327억원의 교통편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이용건수 1억2천986만건 중 환승건수는 3천576만건으로 27.5%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환승건수 3천244만건에 비해 10.2%, 환승금액 295억원에 비해 10.8% 증가한 수치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2006년 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연계한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해 교통수단 간 무료환승을 확대한 바 있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내버스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같은 서비스는 내년부터 전남의 인근 시군인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 ARS·휴대전화·인터넷·정류장 안내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등도 가능해진다.

지난해에는 주요 교차로나 간선도로의 신호연동 및 최적경로 제공 등을 통해 교통혼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ITS) 종합계획이 발주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대남로~서문로~상무로~여동로(35km) 구간에 2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기(5년)와 장기(10년)로 나눠 시행되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에서 허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

능형교통관리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89억원 절감되고 차량의 주행속도도 평균 1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 외에도 대중교통의 또 다른 축인 광주 지역 8천236대의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로 밝아지고 자전거 타기 편하게=도시 야경의 축이 되는 가로조명에 대한 투자도 민선 4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가로등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 범죄예방, 도시민의 야간 활동 증대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광주시는 모두 704억3천100만원을 투입해 노후가로등 7천202본, 타워 12기, 램프 3만 개, 노후보안등 2만 개 등을 최첨단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정비할 예정이며, 관제센터를 두고 지역제어장치 1천811대를 설치하는 등 관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지능형 도로조명 관제센터’를 시정사 7층에 이미 설치했다.

광주시는 또 민선 4기 들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등에 118억8천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자전거 전용도로 간 네트워크 구축, 영산강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및 운영, 공영시민자전거 보급, 관련 이벤트 개최 등에 쓰이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어버이날 제주여행~

무안-제주 항공권 판매

구분	1인	2인
항공권	₩ 150,000	₩ 250,000
호텔 숙박	₩ 100,000	₩ 180,000
교통비	₩ 50,000	₩ 90,000
식사비	₩ 30,000	₩ 50,000
관광비	₩ 20,000	₩ 30,000
보험비	₩ 10,000	₩ 15,000
기타	₩ 5,000	₩ 5,000
총액	₩ 375,000	₩ 620,000

2박 3일 ₩ 250,000

JIN AIR · 광주 MBC 문화탐방

예약문의 : LANO BANK(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 100번지 1001호
 TEL: 062-225-6070 | 225-3338 FAX: 062-225-6355, 062-5004